

2023. 3. 20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

금융투자과장	김국진	2133-8547
--------	-----	-----------

투자유치팀장	김윤정	2133-476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 당 자	김은영	2133-4763
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당부서 : 서울투자청

대 표	구본희	02-6361-4120
-----	-----	--------------

투자전략팀장	문경일	02-6361-4121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누리집 : <http://www.investseoul.org>

### 서울투자청-아일랜드 산업개발청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... 아일랜드 투자유치 전략 배운다

- 서울투자청-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업무협약, 벤치마킹해 독립 출자·출연기관 사업모델 활용
- 아일랜드 산업개발청...구글·애플·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 유럽본부 유치, 경제성장 견인
- 국회 입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 서울 유치 토대 다져야

-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3월 16일(목) 14시(현지 시간), 전 세계 투자유치 전담 기관 IPA(Investment Promotion Agency) 중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호평받는 아일랜드 산업개발청(Industrial Development Agency, 이하 IDA)을 방문해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섰다.
- 서울시는 글로벌 기업,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'서울투자청'을 출범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치고 있다.

- IDA는 대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, 투자 홍보활동 등을 위해 1969년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,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.
  
- 아일랜드는 '10년도 국제통화기금(IMF)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지만 불과 3년 만에 이를 졸업하고, 구글·애플·화이자 등 글로벌 IT·바이오 기업의 유럽본부 유치에 성공했다.
  - 특히,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'21년 13.5%, '22년 12.2%(잠정치)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(GDP) 성장을 기록했고, '22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3만 1천 달러(추정치)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.
    - ※ 1인당 국내 총생산 : 1위 룩셈부르크(14만 1천 5백 달러), 2위 싱가포르(13만 1천 4백 달러)
  
- 아일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는 글로벌 최저 수준인 12.5%의 낮은 법인세와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손꼽는다.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2003년부터 12.5%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%와 유럽연합(EU) 평균 21%의 절반 수준이다.
  
- 양국의 대표적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① 투자 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, ②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, ③ 기업 정책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했다.
  -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'23년에는 상호 성공적인 투자유치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공동 웨비나(화상 토론회)를 개최하여 정책 및 정보교환 등을, 장기적으로는 IDA의 기업지원 절차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한다.

- 서울투자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IDA 수준의 전문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갖추는 계기로 삼고 내년 하반기 투자유치 전담 출연기관으로 전환되어 한층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- 한편, 국내에서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.
  - 서울은 홍콩, 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 도시 대비 높은 세율로 해외금융 기업 유치에 한계를 안고 있다.
    - ※ 법인/소득세율 : 홍콩 16.5%/17%, 싱가포르 17%/22%, 한국 27.5%/45%
  - 법이 개정되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업은 3년간 법인세·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, 이후 추가로 2년간 50% 감면 가능하여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## □ 아일랜드 산업개발청 개요

- 기관명 :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of Ireland
- 설립연도 : 1969년
- 근무인원 : 545명
- 고용창출 : 201,475명 ('22년 기준)
- 기능 : 투자홍보활동, 대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
- 주요성과

- ✓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 '틱톡'

- '20년 더블린에 Trust&Safety Hub 설립
- '20년 6,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



- ✓ 건축, 공학용 디자인 소프트웨어 '오토데스크'

- '18년 유럽본사(EMEA) 본사 이전(스위스→더블린)
- 180명 이상의 고용효과 창출



- ✓ 의료장비 생산기업 '스트라이커'

- '98년 아일랜드 Cork 지역에 생산시설 설립
- 현재 아일랜드 생산제품이 전체 매출의 1/4 차지

